

로르샤하檢査에 있어서 Boundary Score에 관한 研究

吳壽星·鄭明彥

(全南大)

요 약

이 연구는 로르샤하 검사에서의 경계선 점수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경계선 점수를 방벽점수와 관통 점수로 나누어 자아경계의 관계와 반응내용을 분석하였다. 정상군·신경증군·정신병군으로 나누어 각 13명의 피험자에게 로르샤하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서 경계선 점수를 방벽점수와 관통점수로 구분하여 얻었다. 연구결과는 정신병집단이 정상집단, 신경증집단에 비해 방벽점수가 낮고 관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집단에서는 자아경계의 통합이 안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마다의 나름대로 독특한 임상적 자아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계선 점수는 자아경계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지표로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I. 緒 論

자아(自我)의 成立에 觀하여 자아와 비자아(非自我)의 區別을 前提로 하는 것은 S. Freud를 위시한 精神分析的 心理學者가 지적한 바이고, 자아와 비자아의 境界, 다시말하면 자아가 갖는 性質은 人格의 重要한 條件을 규정한다. 자아와 비자아의 區別은 一貫된 自我感覺의 기반이 되고, 自我가 外界와 접촉할 때 現實感覺을 주는 것이 된다. Federn(1952)은 自我境界의 概念을 人格의 重要한 要因으로 파악하고, 自我의 病態인 精神病的의 이해를 촉진했다. Federn에 의하면 精神分裂症에 대한 환각이나 妄想, 作爲體驗 등의 증상은 自我가 붕괴된 결과, 즉 內界와 外界의 혼동이 일어난

상태라고 설명한다. 한편, 健康한 사람에서는 自我境界가 명확하여 外界로부터의 威脅에 위태롭게되지 않고 유연하게 안정된 自我機能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自我境界의 概念은 자아의 病理를 취급할 때에 特別히 有用한 것이 되면서, 그 객관적인 표현을 아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自我境界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태까지 몇가지로 되어 왔다. 인물화를 써서 그린 人物像의 윤곽을 問題로 한 研究, Rorschach Test를 사용하여 反應內容의 境界의 性質에 언급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Rorschach Test가 보다 投影하는 힘이 크며 自我構造를 밝히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간주되었으며, Rorschach Test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제통적으로 널리 쓰이며, 自我境界의 본연의 상태를 나타내보이는 檢査指標도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Fisher와 Cleveland (1958)의 Body Image Boundary Score가 있다. Fisher와 Cleveland는 心身症의 Rorschach 資料로부터 Ink-blot의 境界의 側面에 觀하여 명확하게 견고한 防壁의인 性質을 지닌 것을 一群으로 하고, 境界가 弱한 侵透의인, 非實體의인 性質을 지닌 것을 一群으로 하여 合計 두 개의 다른 scoring system을 고찰했다. 이 score法은 여러가지의 Rorschach Test資料 가운데에서 經驗的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score가 所有한 境界라고 하는 點에 觀하여 概念的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말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前者를 境界의 防壁의인 側面(Barrier score 以下에서는 B score로 略한다), 後者는 境界의 侵透의인 側面(Penetration score, 以下에서는 P score로 略한다)을 받아들이고 있다.

Fisher와 Cleveland는 이것들의 指標가 知的 水準, 言語的 生産性 등 종래의 Rorschach Test 결정요인이라

는 어느 정도 獨立된 것들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Rorschach Test에 觀해 다른 모든 분석법과 다른 有意味한 觀點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II. 研究 問題

1. 理論的 背景

Boundary score의 이론적 假說에 觀하여 Fisher와 Cleveland는 스스로의 身體像境界의 성질이 Ink-blot에 의해 환기된 Image가 境界的 側面에 投影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身體像境界와 본 연구에서 다룬 自我境界 概念과의 差異가 問題가 된다. Fisher와 Cleveland는 身體像境界를 실제의 身體의 境界가 아닌 恒常的인 人格特性으로 사용하고 있고 自我境界와 同意로 쓰이고 있다. 여기까지 Fisher와 Cleveland는 Boundary score에 대해 身體像의 變에 着점을 둘리고 身體的 反應性과의 關係를 追試한 연구(Fisher & Cleveland, 1960)와 自我境界라는 人格特性의 表現法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가 있지만 어느 연구에 있어서도 그 概念은 엄밀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恒常的 人格特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身體像 境界는 身體와 外界와의 境界를 나타내고, 自我境界는 外界와의 境界의 정도가 아닌 內界의 非自我와의 境界도 그 概念 가운데 포함되어 後者의 變이 前者의 變보다 폭넓은 概念으로 쓰이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精神病理群을 대상으로 하여 自我와 外界 및 內界의 非自我와의 境界의 본연의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自我境界의 表現으로는 Boundary score를 쓰고 있다.

Boundary score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Daston과 Mc Connel (1962) 등의 研究가 있고 再檢査에 觀한 前·後 得點間에서 .82~.97의 상관을 갖고 있다. 또 검사자 間의 신뢰성에 관해서도 제법 높은 일치도가 위의 研究에서 追試되고 있다.

妥當성에 관해서는 G. S. R. 또는 심장박동 등의 身體的 反應性과의 關係를 보인 一群의 研究外에 명확한 自我境界를 필요로 하는 人格特性과 Boundary score와의 關係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身體的 stress에의 耐性이나 自己操縱的 行動(self-steering behavior)과의 關係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Fisher (1963)는 그들 연구를 정리하여 B score는 自我境界의 명확성을 보이는 양호한 적응이 示唆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많이 되어왔지만 自我境界를 보이는 人格特性의 尺度로써 사용된 subtest가 여러 갈래에 걸쳐있어 통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妥當성에 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것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으로서는 건강인에서는 自我境界의 현상이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고, 妥當性 검토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정상인의 心理機能이나 作用을 알기 위해 病理的 對상을 사용한 病理學的方法은 그 결함을 스스로 묻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Boundary score를 사용한 精神病理學的 연구는 아직 드물다. 精神病理學 對상에 처음으로 Boundary score를 적용한 것은 Fisher와 Cleveland (1958)이고, 分裂症者의 自我境界가 侵透的·無防備·취약적인 것에 주목하고, 正常群·神經症群에 비해 有意하게 P score가 많고 그 가운데서도 境界性의 파괴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을 나타내보인다. 그리고, P score가 分裂症者의 自我와 外界와의 境界喪失을 파악한 증거로써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研究를 단서로 하여 P score와 分裂症者의 自我境界의 弱하다는 關係를 追試한 연구, 또는 治療효과를 측정하는 예측적 지표로서 사용한 연구가 보여지게 되었다. Cleveland (1960)는 治療에 관한 自我境界의 強化가 P score의 감소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 Boundary score의 因子分析結果 B score는 잘 통합된 判斷구성력, 좋은 상상력, 充分하게 分化된 自我境界 등 自我의 強함을 시사하는 인자에 힘입고 있음에 비하여, P score는 未熟, 身體에의 정착, 精神病理 등 自我의 弱함을 示唆하는 因子에 힘입고 있다고 하는 연구(Holtzman, Thorpe, Swartz, & Herron, 1961)도 있다. 또 分裂症者의 Rorschach 反應의 내용에는 境界의 애매한 것, 境界의 파괴에 관한 것이 많다고 지적한 연구(Zucker, 1958; Minkowska, 1956)도 있다. 이들의 반응은 어느 것이나 Fisher와 Cleveland의 Boundary score의 P score와 같은 양태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다른 한편, Boundary score의 意味에 관해서 Fisher와 Cleveland의 研究와 다른 觀點에서 해석하고 있는 Landis (1970)의 研究가 있다. Landis는 B score는 境界의 말한 면, P score는 境界의 소용면을 나타내며, 각 score는 positive한 면과 negative한 면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Landis의 연구는 正常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精神病理群에 적용한 경우 P score의 정도가 현저하기 때문에 fluidity score(流動點數)라는 negative한 意味를 가진 score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以上과 같이 Boundary score를 둘러싼 그 概念的

妥當性和 score의 意味에 對해 충분히 통일된 견해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本 연구에서는 自我境界의 表現法으로써 Boundary score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하고, 종래 연구에서 검토되었던 것들을 보다 유효한 自我境界 表現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종래 연구에서 소홀히 했던 點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Boundary score에 있어서 각 score간에 유사한 點이 많고, Fisher와 Cleveland의 것이 Boundary에 관한 관점을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Fisher와 Cleveland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Zucker는 分裂症者의 自我境界 喪失을 나타낸 중요한 지표로써 境界의 파괴를 보인 반응과 함께 “도판과의 거리 상실 반응”을 들고 있고 이 반응을 Boundary score의 한 항목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不備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종래의 研究에서는 精神病群의 自我境界障害를 나타낸 指標로서 P score, 正常群, 神經症群의 B score가 높다고 지적되어 있고, 총 P 反應數, 총 B 反應數의 群間 비교는 되어있지만, 각 score의 內容의 相異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 P score, B score는 境界라는 點에서 概念的 共通性은 각기 內容이 다른 7個의 sub category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3) 종래의 연구에서는 精神病群에 對한 B score, 正常群, 神經症群에 對한 P score는 그다지 意味를 지니고있지 않다. 그러나 Barrier와 Penetration이라고 하는 그 方向性이 同一個人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兩方의 score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등이다.

따라서 本 연구에서는 위에 지적된 點들을 根據로 연구의 必要性 및 假說을 세우게 되었다.

個個의 score의 相異點은 대상이 되는 被驗者層이 다른 것과 같은 原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Boundary score의 전체적 경향을 보기 위해 正常群, 神經症群, 精神病群의 群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 총 B 反應數, 총 P 反應數로 보지 않고 Boundary score의 보다 상세한 內容을 分析하기 보다 各 群의 特質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한다.

各 群에 對한 B score, P score를 各各 高得點과 低得點에서 이루어진 4個의 sub group으로 자아의 強함이 臨床的 증상의 특징을 인지하는지 검토하는 것보다 P score와 B score의 意味를 고찰한다.

2. 假 說

1) Boundary score를 各各 正常群, 神經症群, 精神病群의 被驗者에게 적용할 경우 精神病群의 B score는 낮고 P score는 높을 것이다.

2) Boundary score의 內容을 分析할 경우 正常群의 B score는 自然的인 防壁, 神經症群은 두려운 防壁이라는 自我境界가 특징지워질 것이다.

III. 研究 方法

1. 研究 對象

正常群(18~27세, 中央值 23세, 男性 34名, 女性 19名)

神經症群(19~51세, 中央值 29세, 男性 7名, 女性 6名)

精神病(17~57세, 中央值 31세, 男性 15名, 女性 6名)中 正常群, 神經症群, 精神病群, 各 13名을 試驗자로 神經症群, 精神病群의 진단은 主治醫에 의한 것이며, 神經症群은 不安神經症, 우울신경증, 對人恐怖, 強迫神經症, 離人症 등을 포함하고, 精神病群은 精神分裂症者와 그밖의 非定型精神病을 포함하고 있다. 역시 전문가에 의해 神經症 및 精神病으로 진단되지 않고, M. M. P. I. 프로파일에서 不適當하지 않은 被驗者이며 주로 全南大學校 在學中인 사람을 正常群으로 채택하였다.

2. 研究 節次

1次 檢査: 1981년 10월 7일~10월 25일, 全南大學校, 성요한병원 신경정신과

2次 檢査: 1981년 11월 4일~11월 28일, 성요한병원, 도립뇌병원.

주로 心理學科 實驗室과 病院 면담실에서 各 試驗者에게 Rorschach Test를 실시하고 各各의 반응에 따라 Boundary score를 적용했다.

B score와 P score에 해당하는 反應에 1점을 가산하여 총 Barrier, 총 Penetration 反應數를 산출한다. Fisher와 Cleveland (1958)은 총反應數(R)와 B, P反應數가 비례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놓고, R이 많은 반응에서는 B, P反應도 많아지기 때문에 R의 통제를 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R에 통제를 加하지않은 臨床的 資料를 사용했으므로 各 score를 R로 나누어 Barrier%, Penetration%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R에 관한 個人差要因을 제거했다. 역시 R이 10以下인 자료는

제했다. 다음에 上記의 과정을 거쳐 얻은 자료를 앞에 제시한 문제점에 따라 분석했다.

IV. 結 果

正常群, 神經症群, 精神病群에 따라 B score와 P score를 제시한 것은 <表 1>과 같다.

<表 1> 각 집단에서의 B score와 P score

	B score	P score	Total
정상군	97(7.5)	66(5.1)	163(12.5)
신경증군	81(6.2)	54(4.2)	135(10.4)
정신병군	38(2.9)	55(4.2)	93(7.2)
	216(16.6)	175(13.5)	391(30.1)

이 결과를 변량분석한 것은 <表 2>와 같다.

<表 2>

Analysis of variance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Between subjects	281.49	38		
A	95.49	2	47.75	9.24**
subjects within groups	186	36	5.17	
within subjects	175.5	39		
B	21.55	1	21.55	7.81**
AB	54.57	2	27.29	9.89**
B×subjects within groups	99.39	36	2.79	

** : $p < .01$

이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正常群, 神經症群, 精神病群 사이에는 P score, B score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精神病群에서는 他群에 비해 B score와 전체 score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B score와 P score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B score가 P score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다.

또 이들의 상호작용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神經症群에서는 P score에 비해 B score가 뚜렷이 높는데 비해 精神病群에서는 B score에 비해 P score가 높게 나타나 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도판과의 거리상실반응”을 가한 영향은 그다지 인정되지 않았다.

1) B score에 대하여

正常群에 대해서는 의복반응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 自然的인 의복반응과 不自然的으로 과잉보호적인 의복반응으로 나누어보면 自然的인 의복반응이 他群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다.

神經症群에 대해서도 의복반응 가운데에서 과잉보호적인 표면을 강조한 반응(투구와 갑옷의 무장 등), 견고한 윤곽을 강조한 物體反應이 他群에 비해 많아 보였다.

精神病群에 대해서는 총 Barrier 反應數는 작지만 不

自然스런 의복반응이 많고, 또 그릇 등 비교적 防禦의 성격이 작은 反應이 많이 인정되었다.

2) P score에 대하여

正常群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경향을 示唆한다는 것은 어렵다.

神經症群에 대해서는 애매한 경계를 보인 反應이 他群에 비해 많다. 그러나 大地에 대한 구멍이나 입구 등의 열린 反應이 작은 경향을 보였다.

精神病群에 대해서는 입구, 性器등의 열린 反應이 神經症보다 많다. 또 “도판과의 거리상실반응”이나, 경계의 파괴를 보인 반응은 Zucker 등이 分裂症者의 自我境界喪失을 特徵의으로 보인 指標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것이나 有意한 差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서로 붙어있는 쌍생아등의 경계가 붕괴하면서도 전체적인 境界가 유지되고 있는 개념을 보인 score에도 세 群間의 差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계파괴반응 가운데 對象을 생물에 관한 것과 무생물에 관한 것을 나누어보면 대상이 생물인 경우 正常群에 비해 많다고 인정되었다.

V. 論 議

精神病群에서는 B 反應이 작고, P 反應이 많은 것

으로 他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것이 보였다.

Boundary score는 精神病水準을 特徵지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종래의 Rorschach Test에 대한 경계개념의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自我境界의 붕괴를 특징으로 하는 精神病群이 他群과는 質적으로 다른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精神病群을 높은 P 反應과 낮은 B 反應으로써 他群과 크게 다르다고 한 Fisher와 Cleveland의 결과에 비해, 本研究에서는 神經症群에 反應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 요인으로써 R의 통계의 수단이 Fisher와 Cleveland와 다른 것, 피험자층이 다른 것을 들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높은 P 反應群에 離人症, 對人恐怖, 強迫 神經症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보인 것처럼, 本研究에서는 Fisher와 Cleveland의 神經症群에 비해 病勢의 정도가 다른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요인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런데도 神經症群의 P score, 他群의 B, P score와의 양상에 대해서는 本研究의 獨自의인 요인으로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각 score가 지닌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Fisher와 Cleveland는 B score를 오로지 自我境界의 명확성과 意味지우고 있을 뿐이고 그 內容으로 正常群, 神經症群을 구별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B score의 內容분석을 해본다면, 正常群에서는 自然的인 의복반응이나 두터운 境界를 강조한 물체반응이 많다는 특징이 인정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正常群에서는 自然的인 防壁, 神經症群에서는 두터운 防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명확한 自我境界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건강한 정상군에 비해 두터운 방위적인 신경증군이라는 臨床的 自我境界의 差에 대응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精神病群에서는 P score뿐만 아니라 B score가 正常에의 防壁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 正常群, 神經症群에서는 B score의 內容이 各群에 특징적인 防壁의 性質을 보인 것이라 생각되며, B score, P score는 서로 negative한 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 Landis가 말한 것처럼 B score가 自我境界의 닫힌 면, P score가 自我境界의 소통 면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인가.

결국, 自我境界의 성질에 防壁的인 면과 侵透的인 소통적인 면이라는 두 개의 方向이 있어 B score, P score에 그 면의 성질이 함께 各群을 특징지운다고 생각하면 Boundary score가 Fisher와 Cleveland의 一面의 해석으로부터 보다 역동적인 自我境界 概念에 합치

되어온다.

以上の 假說에 따르면 正常群에서는 P score가 소통성이 양호하다는 positive한 의미를 지니고 神經症群, 精神病群에서는 侵透性이라는 negative한 意味를 지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행해은 本研究의 문제점으로서서는 피험자층의 문제(各群에서 연령, 지능, 교육수준이 같지않고, 神經症, 精神病群의 증상이 여러갈래에 걸쳐 있는 것 등)를 들 수 있겠다.

VI. 結 論

本 研究는 自我境界 表現法인 Boundary score의 妥當性檢證의 시도이다. 自我境界는 假說的 概念으로 직접적인 妥當性檢證은 기대할 수가 없겠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Boundary score의 自我境界 表現으로서의 유효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1) Boundary score를 各各 13名の 正常群, 神經症群, 精神病에 적용할 경우 精神病群의 B score가 낮고 P score가 높다는 특징이 인정되었다.

2) Boundary score의 內容분석을 할 경우 正常群의 B score는 自然的인 防壁, 神經症群은 두터운 防壁이라는 各群의 臨床的 自我境界가 있음이 인정되었다.

종래의 研究에서는 B score는 自我境界의 명확성, P score는 취약성을 보인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또 以上の 결과에서 B score는 自我境界의 防壁의인 면, P score는 침투면, 소통면을 보이고, 兩 score가 함께 各群의 自我境界의 성질을 특징지운다고 생각하면 보다 역동적인 自我境界의 指標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田溶新. Rorschach檢査法. 高麗大學校 行動科學研究所編, 1972.
- 鄭愛子. 로르샤하검사에 있어서 防柵反應과 貫通反應. 高麗大學校 行動科學研究所, 1979.
- 김정인. 정신병환자의 회화요법. 全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7.
- 金性熙. 人間本性的 比較生物學的 考察. 全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70.
- Fisher, S. & Cleveland, S.E. Body Image and Personality. Princeton; Van Nostrand, 1958.
- Cleveland, S.E. Body Image changes associated

- with Personality reorgan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0, 24(3), 256~261.
- Cassell, W. A., A tachistoscopic ideas of body perception I. Body Boundary and interior awareness. *Journal of projection technique and Personality Assessment*, 1966, 30, 31~36.
- Fisher, S. A further appraisal of the body boundary concep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3, 27, 62~74.
- Fisher, S., & Cleveland, S. E. *Body Image and Personality*. Princeton: Nostrand, 1958.
- Holtzman, W. H.; Torpe, J. S., Swartz, L. D., & Herron, E. W. *Inkblot perception and personalit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61.
- Landis, B. Ego boundary. *Psychological Issues*, 6, No. 4., Monograph 24, 1970.
- Zucker, L. Ego structure in paranoid schizophrenia.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1958.
- Cleveland, S. E., & Fisher, S. A comparis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physiological reactivity in Ulcer and rheumatoid arthritis groups. *Psychosomatic Medicine*, 22, 283~289, 1960.
- Daston, P., & McConnell, O. Stability of Rorschach Penetration and barrier score over tim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6, p. 104, 1962.
- Federn, P. *Ego psychology and the Psychoses*. New York: Basic Books, 1952.
- Klopher, B.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a Prognostic Rating scale. *Journal Projective Techniques*, 15, 421~423, 1951.
- A Study on Boundary score in Rorschach Test
- Soo-Seong Oh, Myung-uhn Chung
- Abstract
- Study on Boundary score in Rorschach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boundary score in Rorschach test. Specificall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ego boundary by dividing it into Barrier score and Penetration score. The study sample is consisted of 39 persons drawn from three different groups, i.e., normal, neurotic and psychotic groups. The Rorschach test was administered to sample, and subsequently, boundary score was obtained from the test results.
- The research findings are the followings:
- 1) Among the psychotic group, when compared with normal and neurosis groups, B score was relatively low, while P score was high. This indicates the disintegration of ego-boundary among the psychotic groups
 - 2) When the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to the Boundary score,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each group seemed to have their own clinical ego boundary. In sum, Boundary score can be regarded as a more dynamic index for ego boundary within the context, a new potential of Boundary score is realized.